



대학주보



등록금 환급 비율 실납부액의 5% '교육환경 개선' 논의도 합의

김지원 기자 kjw990327@khu.ac.kr
이현정 기자 pr3417@khu.ac.kr

지난달 28일 학생과 학교가 특별 장학금 형태로 지급될 등록금의 반환비율 5%(32.5억)로 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해당 문제를 두고 줄곧 평행선을 달려온 양측이 개강을 나흘 앞두고 합의점에 이른 것이다. 합의 시점이 2학기 개강일을 넘기지 않아 지난달 졸업한 학생도 특

별장학금을 받게 됐다. 학교는 2학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생 측이 제안한 '교육환경개선안'도 수용했다. 앞서 양측은 '등록금 반환' 문제를 두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세 차례에 걸친 '등록금 반환 회의'를 진행해온 바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잇따르자, 7월 14일 우리학교는 1차 등록금 반환 회의를 열었다. 이날 양측은 "특별장

학금 형태로 일부 등록금을 반환하자"는 큰 틀에서는 합의를 이뤄냈지만, 지급 방식이나 액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1차 회의의 주된 의제는 '등록금 반환비율'이었다. 회의에 참석한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 최인성(생물학 2016) 회장은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금의 20%를

2면으로 이어짐

알림



우리신문이 이번 1662호부터 타블로이드 판형으로 탈바꿈했다. 지난 2007년 대판에서 베를리너 판형으로 변경한 것에 이은 두 번째 판형 변경이다. 타블로이드 판형(254mm*374mm)은 기존 베를리너 판형보다 콤팩트한 사이즈다.

미디어의 중심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감에 따라 점차 판형을 축소해나가는 신문 업계의 흐름과도 맞닿아있다. 실제 영국 유력 일간지인 《가디언》, 《더 타임스》 등은 타블로이드 판형을 채택해오고 있다. '디지털 퍼스트(digital first)'를 지향해

온 우리신문도 새로운 판형으로의 변경을 통해 유통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한다. 판형이 축소됨에 따라, 이메일 뉴스레터 등을 통한 디지털 판형 유통 과정에서 가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릇이 달라짐에 따라 그 내용 또한 변화를 꾀할 예정이다. 판형 축소와 함께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했다. 이로써 기사 주제를 더욱 세분화하고, 한 면에 단일한 기사를 배치해 디자인 측면에서도 기존의 정형화된 레이아웃을 벗어나고자 한다.

사령

면

〈서울뉴스팀장〉장보경(언론정보학 2018)

〈국제뉴스팀장〉문하령(한국어학 2017)

인재양성 위한 BK21사업, 7개 연구단(팀) 치열한 경쟁 뚫고 예비 선정

박혜림 기자 apricot12@khu.ac.kr

우리학교 7개 교육연구단(팀)이 4단계 BK21(BrainKorea21) 사업에 예비 선정됐다. 현재 최종 선정에 앞서 후보 대학에 대한 이의제기 건 심의 및 현장점검 중이며, 9월 중 확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4단계 BK21 사업에 최종 선정된 교육 연구단(팀)은 2020년 9월부터 7년간 사업비를 지원 받는다. 대학원생은 석사과정 월 70만

원, 박사과정 월 130만원, 신진연구자 월 300만원 이상의 장학금을 각각 지원받는다.

우리학교는 4단계 BK21사업에 지원한 93개 대학 중 교육연구단이 5개 이상 예비 선정된 대학인 '혁신지원대학'으로 선정돼 대학원혁신지원비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대학원혁신지원비는 대학 차원에서 대학원 제도 개혁을 추진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

로 하며, 대학별 교육연구단 수, 참여 교수 및 지원 대학생 수 등을 고려해 배분된다.

예비 선정된 우리학교 7개 교육연구단(팀)은 ▲지속가능한 스마트관광·호스피탈리티 교육플랫폼 사업단 ▲역사 분야 글로벌 문명교류사 ▲지속가능 빅데이터 신산업 선도인력 교육연구단, ▲차세대 가상증강현실 하드웨어 선도시스템 혁신교육연구단 ▲기능형 다차원 프로그래밍 소재 및 시스템 융합기

술 교육연구단 ▲융합미래통신 혁신인재양성 교육연구단 ▲초고령사회 플랫폼 기반 고령서비스-테크 문제해결형 혁신인재 양성사업단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미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BK21 사업은 우수 대학원 역량 강화와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목표로 한다. 학문후속세대가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

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앞서 BK21 사업은 1단계(1999~2005), 2단계(2006~2012), 3단계(2013.9.~2020.8.)를 거쳤으며 이번 4단계는 교육연구단의 수와 비중을 더욱 확대했다.

교육부 측은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통해 우리 대학들이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절대평가·세부성적공개제도 확정...학생 학습권 보장 고려

5주간 모든 수업 비대면 진행
‘비대면수업 기본 원칙’ 마련
중간고사 비대면 결정은 아직

허지영 기자 krjy000224@khu.ac.kr

지난달 28일 학사지원팀은 2학기 수업 운영 방식을 일부 변경했다. 개강 후 10월 4일까지 5주 가량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학사지원팀에 따르면 비대면 수

업은 학부와 대학원을 포함, 2학기 학위 과정 내 개설된 모든 강좌를 대상으로 한다. 이론 및 실기 강좌 모두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며, 10월 5일부터는 이전에 공지한 바와 같이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진행한다. 다만 추후 상황에 따라 비대면 수업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학사지원팀은 ‘비대면수업 기본 원칙’을 마련해 이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교강사는 학기 당 수업일수인 15주를 준수해야 하며 휴강으

로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했다면 반드시 보강을 진행해야 한다. 강의 콘텐츠 재생 시간은 수업 1시간 당 이론 강좌 25분 이상, 실기 강좌 10분 이상으로 해야 한다. 콘텐츠 재생시간을 포함한 1차시 총 학습시간은 수업시간 1시간당 50분 이상을 권장한다. 이때 학습시간은 강의 자료 재생 시간, 질의·응답 및 토론, 발표, 과제, 기타 온라인 학습활동 시간 등을 포괄한다.

학생 피드백을 토대로 한 권장사항도 안내됐다. 이에 따르면 수년

전에 제작되거나, 화질 또는 음질이 좋지 않은 영상자료는 지양해야 한다. 강의자료 업로드에 대한 안내는 반드시 강의시간 전에 이뤄져야 하며, 학생들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또한 제공해야 한다.

학사지원팀 전준하 행정주임은 “비대면 수업을 결정할 당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기 전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

지된 바와 같이 10월 5일부터는 대면 수업이 원칙”이라며 “차주 열릴 비대면수업 TF를 통해 수렴될 학생 피드백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중간고사를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할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우리학교는 2학기 성적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확정하고, 성적 공지 시 세부사항을 공개하는 세부성적공개제도를 의무화한 바 있다.

1면에서 이어짐

반환하고, 이를 위한 재원 확보 계획을 제시할 것”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남순건 서울 학무부 총장은 “코로나19 사태로 학생들이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은 인정하지만 등록금의 20%는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액수”라며 “각 단과대학과 대학본부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수입 감소로 현재 학교의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백은식 국제 학무부총장 또한 “대면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느꼈던 손실감은 인정한다”면서도 “학교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타협점을 찾고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총학은 기존의 “등록금 20% 반환안”에서 절반을 줄인 ‘10% 반환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대학은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1차 등록금 반환 회의 진행 특별장학금 지급으로 합의

재원 확보 방안을 둘러싼 양측 시각차도 드러났다. 학생들은 대학이 장래의 긴급 상황에 대비해 저축해 놓는 ‘적립금’을 사용하자고 주장했지만, 학교 측은 사용 목적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선을 그었다. 서울캠 총학 정경원(회계세무 2016) 부회장은 “우리 대학은 적립금 1000억 원 이상 보유 대학으로 교육부의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현재 본부는 재원 마련 계획으로 지출 감소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축된 적립금 등 여러 재원을 고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 부총장은 “또 다른 긴급 상황 발생 등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적립금 사용은 논외로 하자”며 “학교가 마련할 수 있

는 최대한의 재원을 마련해서 특별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 양성민(원자력공학 2015) 회장은 “적립금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를 정확히 밝혀야 논의가 진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생회 “20%반환·적립금 활용” 대학 “재정 여의치 않아, 적립금 활용 불가”

1차 회의 때 합의하지 못한 특별 장학금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2차 등록금 반환 회의가 열렸지만 또 다시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2차 회의는 서울캠 본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일정이 연기되면서 8월 21일 국제캠에서 진행됐다. 이날 양측은 ‘적립금 사용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 학교 적립금을 사용하자는 학생들의 주장에 학교 측이 지난 1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사용 불가 원칙을 고수한 것이다.

서울캠 최 회장은 “1차 회의 때 요구했던 적립금 사용 불가에 대한 근거 자료를 준비하지 않은 것은 학교 측이 합의점을 찾으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은 아니냐”며 “특별장학금을 위해 현재까지 확보한 예산이 1학기 재학생 실 납부액의 2%에 불과한 것 또한 확인했다”고 꼬집었다. 조진성 기획조정처장은 “적립금은 경영 위기 상황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자”고 재차 강조했다.

양측은 등록금 반환비율에 대한 문제를 두고도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학교 측이 재정 악화를 주장하면서다. 조 기초처장은 “총학이 1차 회의 때 요구한 1·2학기 재학생 실 납부액의 10%에 해당하는 예

산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단과대학 자율 운영 예산 중 미집행 금액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추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부총장은 “학교는 관리 운영비를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와 인건비의 상승으로 적자를 메우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계속되는 논의에도 특별장학금 액수와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자, 서울캠 총학 정 부총학생회장은 “적립금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다”며 “총장을 직접 만나 적립금 사용과 관련한 논의를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남 부총장은 총장의 위임권을 부여받아 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재차 밝히며 총학의 제안을 일축했다.

2차 등록금 반환 회의 “지지부진” 양캠 총학생회장 본관무기 대기

두 차례의 회의에도 특별장학금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양 캠퍼스 총학생회장은 총장실 항의 방문을 강행했다. 이후 학교 측으로부터 총장 주재의 3차 등록금 회의를 약속받았지만, ‘적립금 사용 불가 근거’와 ‘지출감소분 내역’ 자료 공개에 대해선 거부하자 두 총학생회장은 무박 3일의 본관 무기한 대기 시위를 벌였다. 학교 측 주장을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는 것이 주된 골자였다. 그러나 학교 측은 총학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회계 상의 이유 등으로 전달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총학 요구로 한균태 총장이 주재하는 3차 등록금 반환 회의(3차 회의)가 8월 27일 국제캠 대회의실에

서 열렸다. 3차 회의에서도 지난 2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타협점을 찾지 못했던 특별장학금 세부사항에 관해 논의가 진행됐다.

학생 측은 “학교 측 제안이 합리적이고 납득 가능하다면 합의할 의사가 있다”며 “보다 발전적인 소통을 위해 기존 요구했던 적립금 관련 자료 요청은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리운영비 미집행 내역’ 요구안에 대해선 기존과 변함없는 입장을 고수했다. “전체 절감분과 추가 지출 관련 목록을 통해 코로나19가 학교 재정에 변동성을 주었음을 확인했다”며 반환비율 합의에 앞서 검토를 위한 자료를 재차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학교 측은 “현재 총학이 요청하는 자료의 공개 범위와 구성은 학교 입장에서 다소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며 “현시점은 1년 회계가 끝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 연말에 결산이 공시되면 확인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절충 위한 ‘교육환경개선안’ 제안

자료 공개에 대한 입장을 좁히지 못하자 양 캠퍼스 총학은 절충안 마련을 위해 ‘교육환경개선안’을 제안했다. 코로나19로 열악해진 교육환경을 개선하자는 의도로 마련된 개선안은 ‘교무처장 주재의 학사운영 TF’, ‘본부 지침 미준수 교강사 파악’, ‘이캠퍼스(e-campus) 등 비대면 플랫폼 개선’ 등으로 이뤄졌다.

서울캠 총학 정 부총학생회장은 “2학기 교육환경 보장을 위해 마련한 교육환경개선안을 학교 측이 약속해준다면 절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해 양보의 여지를 남겼다. 학교 측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

였다. 한균태 총장은 “학교의 핵심 가치가 교육과 연구에 있는 만큼 교육의 질을 높이지는 제안에 학교가 힘쓰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본 개선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차후 회의에서 조율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학교 측은 4% 수준의 등록금 반환비율을 제안했다. 한 총장은 “학생들이 경험한 학습권 침해와 주변 대학 반환비율을 고려했다”며 “실 납부액의 4% 정도 수준을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재원은 현재 단과대에서 환수한 미집행 예산과 아울러 2학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수익, 동문 모금 캠페인을 통한 기금 등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애기했다.

등록금 실납부액 5% 반환 확정

등록금 반환비율에 대한 학생 측 자료 공개 요구가 재차 이어지면서 논의는 잠시 답보 상태에 놓이기도 했지만, ‘1학기 졸업생’이 변수가 되어 급물살을 탔다. 만약 8월 이내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9월 1일을 기점으로 재학생 신분을 벗어날 졸업생이 특별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맥락에서다. 이에 총학이 28일 오전까지 학교 측이 제시한 등록금 반환비율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로 하면서 3차 논의는 마무리됐다. 이후 28일에는 양측이 등록금 비율 5%(32.5억)라는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3차 회의에 이어 28일 오전까지 이뤄진 추가 논의를 통해 마련한 합의안을 통해서다. 양측이 합의한 등록금 반환비율은 기존 총학이 주장했던 10%의 절반 정도지만, 학교가 최초 제안한 비율(1%)보다 4%, 마지막으로 제안한 비율(4%)보다 1% 상승한 비율이다.

우리학교 의대생 98% 휴학 참여...일각서 방식의 적절성 지적되기도

이태영 기자 ysmhip6@khu.ac.kr

우리학교 의과대학(의대) 학생들이 의과대학 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에 항의하며 2학기부터 전국 40개 의대와 함께 ‘동맹휴학’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의대 학생회는 지난달 19일부터 5일간 동맹휴학에 참여할 학생들의 휴학계를 접수받았다. 휴학 기간은 1년이다. 의대 학생회에 따르면, 이번 동맹휴학에 참여하는 우리학교 의대생은 지난달 31일 기준 예과 1학년부터 본과 3학년까지 521명(의대 정원 528명)에 달하며, 의사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포기한 학생은 89명(국시 응시 정원 95명)이다.

이번 동맹휴학에 따라 2학기 의대 수업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강준구 의대 행정과장은 “학생들이 끝까지 동맹휴학을 철회하지 않았을 때 수업 운영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집단휴학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인 만큼, 대학본부와 해당 사안에 관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학교 의대 교수들도 지난 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대생들의 단체 행동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의대 교수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의사들의 땀방울이 마르기도 전에 정부는 4대 의료 정책 졸속 추진을 단행하려 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유관단체와 협의했다고 하는데,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를 배제하고 누구와 사회적 합의를 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4대 의료 정책을 즉각 철회



지난 14일 '전국 의사 총파업 결기대회'에 참여한 의대생과 의사들이 여의대로를 메우고 있다.

(사진=시위참여자 제공)

회하고 의료계와 협의 하에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면서 “단 한 명의 학생, 단 한 명의 전공의, 단 한명의 전임의도 이번 사태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대 학생회가 휴학계를 접수받는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대 학생회는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들의 명단을 의대 학생이라면 모두 볼 수 있는 매체를 통해 공개했는데, 이는 휴학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암묵적인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의학과 재학생 A 씨는 “다수의 학생들이 휴학하자고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에서 의대 학생회가 공개하는 동

맹휴학 참여인원 명단을 보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아, 나도 휴학해야 하나’하면서 마음을 졸인 학생들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예과 재학생인 B 씨는 “모두 하나가 되어 뭉쳐야 한다는 의대 내부 분위기가 휴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하면 순식간에 평판이 나빠질 수 있다”며 “휴학에 참여하는 사람 명단을 공개하니 어쩔 수 없이 휴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대 이의주(의학과 2017) 학생회장은 “휴학원서를 수합하면서 생길 수 있는 누락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명단을 공개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 회장은 “휴학원서를 제출하지 않

는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명단 공개를 통해 휴학원서를 제출한 학생이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어야 한다”며 휴학원서 제출 명단을 24시간 동안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휴학원서 제출 명단은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앞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4대 의료정책(▲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방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도입)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 수준을 한참 못 미치고, 지역 간 의료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 등을 들어 4대 의료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

는 정부의 의료정책이 의학교육과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릴 게 아니라 비인기 진료과목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정부의 4대 의료정책에 반발했다.

이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달 16일 국시응시자대표 회의를 열고 1일로 예정되었던 국시에 대한 응시거부를 의결했으며, 다음날인 17일 대의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전국 40개 의대의 동맹휴학을 의결한 바 있다. 그 결과로 지난 28일 기준 전국의 국시 응시생 3,172명 중 2,823명(89% 상당)이 국시 응시를 거부하고, 전국 의대 학생 14,000여 명이 동맹휴학에 참여하게 됐다. 정부는 1일로 예정되었던 국시 실기시험을 8일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대협은 의료정책 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국시 거부 단행행동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의대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지난 4일 정부·여당과 최대집 의협회장이 4대 의료정책 추진 중단을 조건으로 하는 의사들의 진료 현장 복귀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다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으로 구성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정부·여당과 의협 간의 협의가 최대집 의협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의대협 의료정책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는 동맹휴학과 국시 응시거부 유지를 두고 국시 응시자대표 40인, 대의원 40인으로 이뤄진 내부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캠퍼스 구성원도 의료혜택 받는다... 녹산의료재단과의 상호협력 협약식 개최돼

허지영 기자 krjy000224@khu.ac.kr

【국제】 지난 19일 우리학교 국제캠퍼스(국제캠)가 녹산의료재단과 상호협력 협약을 맺었다. 이에 국제캠 구성원은 녹산의료재단 산하 병원에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국제캠 구성원에 대한 의료 혜택은 녹산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동수원병원과 동수원한방병원에서 제공된다. 국제캠 외국인 학생을 포함

한 재학생, 교직원이라면 누구나 의료 혜택 대상이며, ‘장례식장 사용료’ 50%, ‘비급여 진료비’, ‘종합건강검진비’ 20%, ‘한방병원 비급여 진료비’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비급여 감면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환자에 한한다.

녹산의료재단은 1984년 2월 경희의료원과 자매결연을 한 뒤로 동수원한방병원과 동수원남양병원을 차례로 개원하였다. 이후 수련의 과정, 교수초빙, 협진 등으로 경희의

료원과 꾸준히 교류해온 기관이다. 녹산의료재단의 변영훈 이사장 역시 우리학교 의과대학 동문 83학번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학교와의 다양한 교류협력 활성화에 힘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학교와 녹산의료재단은 의료혜택뿐 아니라 사회 공헌 사업 추진, 구성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지원, 대학시설 및 기자재 공동 활용 등의 다양한 면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의 기간은 2년으

로, 별도의 통보가 없을 경우 기간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우리학교 대외협력처는 “기존 의료 협력을 진행해온 경희의료원과 강동경희대병원은 국제캠퍼스와 거리가 멀어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캠퍼스에 많은 이공계 연구생이 상주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비상 의료체계 구축이 시급했다”며 “외국인 구성원 또한 의료기관의 영어 서비스와 체계화된 진료비 청구

프로세스 등을 제공 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협력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제캠퍼스 구성원이 동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진료 절차 편의와 세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이번 협력을 통해 구성원의 건강증진과 의료복지 확대, 비상 의료체계 구축, 종합병원과의 교류 협력 활성화를 통한 발전 도모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학생들만 노리는 ‘의문의 번호’...“혹시 경희대 다니셨나요?”

이태영 기자 ysmhip6@khu.ac.kr

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여학생들에게 연락을 취해 “같은 대학 동문인데 당신을 잘 알고 있다”며 친해질 것을 요구하고, 만남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자율전공학과 학생회는 지난 5월 SNS를 통해 “자율전공학과 소속 여학생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특정 번호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화를 건 신원불명의 남성이 여학생의 이름을 부르며 “전화번호 정리를 하다가 연락드렸다, 나는 학교 동문이다”라며 만남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자율전공학과 이승준(자율전공학과 2019) 학생회장은 “해당 남성이 자신을 학교 선배라고 소개하며 만남을 요구하고 매번 이름을 바꿔가며 사칭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자율전공학과 학생회에 따르면 우리학교에서 해당 사례로 접수된 건수는 8월까지 약 100회에 이른다. 해당 남성은 스스로를 ‘응용과학대학 2014학번 졸업생’, ‘약학과와 학생회 임원’, ‘경희대에서 타 대학으로 학적을 옮긴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현직 교사’ 등 각기 다른 이름과 신분으로 스스로를 소개했다. 그러나 해당 남성이 스스로 근무하는 학교라고 밝힌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는 그 남성이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율전공학과 학생회측은 “소속학과 여학생들에게 사칭메시지가 발송된 것을 확인한 즉시 해당 번호



“개인 정보 유출 정황 포착 시 학교 측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로 두 차례의 경고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통화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남성은 별다른 회신 없이 그 다음날까지도 여학생들에게 연락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회는 ‘스토킹 혐의’로 사이버경찰서에 해당 사건을 신고하고 개인정보의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자체조사를 진행했다. 학생회 측은 해당 남성이 실제로 경희대와 관련 있는 인물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율전공학과 행정실, 학생지원처, 학생회를 대상으로 자체조사를 실시했으나 위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 데이터 중 해당 남성의 전화번호는 존재하지 않았다.

피해 학생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소속 대학과 전공 등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무더기로 확보했는지, 그 동기는 무엇인지가 불분명한 탓에 학생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일부 학생은 신입생 단체톡방을 만들기 위해 인터넷 카페에 올린 정보를 확보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지만 그런 글을 게시한 적이 없는 학생들도 연락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처는 자율전공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정보처 정보기획팀 허웅 담당자는 “2020년도에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접수된 건은 없다”면서도 “보안에 100%는 없기 때문에 학교 차원의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보처 차원에서 이뤄지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에 이번

사건의 내용을 반영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학과 행정실이나 학생회 측에서 지원을 요청한다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허담당자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인식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포착했을 때는 학생회, 학과행정실, 개인정보 담당자에게 신고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중앙대, 연세대, 홍익대 등 타 대학에도 동일한 수법의 피해를 호소한 학생들이 속출했다. 중앙대 경영학부 운영위원회는 7월 소속 학부와 전공을 사칭하는 자의 연락을 경계하라고 공지했다. 연세대 총학생회(총학)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학생들의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21일 서대문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해당 남성을 고발했다. 연세대 총학이 수집한 연세대 내 피해 사례는 65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작년에는 강남대, 재작년에는 서울대의 학생들이 이번 사례와 유사한 패턴의 연락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2017년 성신여자대학교에서는 교직원으로 신분을 사칭한 자가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만남과 성상납을 요구했던 사건이 발생했다. 또, 수년 전부터 서울,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본인을 특정 대학 학생회 임원, 모 명문대 재학생 등으로 사칭한 한 남성이 무차별적으로 모르는 여성의 가방에 전화번호를 적은 쪽지를 남겨두고 이후 연락을 유도하거나 협박하고, 일부 여성을 스토킹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2020학년도 2학기 복학생·재입학생 우정장학 신청 안내

1. 목적 : 저소득층 학생의 안정적 학업환경 조성
2. 신청자격
 - 2020-2학기에 정규학기 재학중인 복학생·재입학생
 - 2020-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 및 2차 신청자 중 재단구제자
 - ※ 국가장학금 2차 신청자 중 재단구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우정장학 수혜불가
 - 2020-2학기 기준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인 자
 - ※ 국가장학금 수혜여부와 무관하게 교내장학 수혜자격을 갖췄을 경우 수혜가능
3.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6년제 의약학계열 15학점) 이상 이수
 - 직전학기 평균평점(원성적) 2.0 이상
 - ※ 단, 직전학기가 교환학기 또는 장기현장연수인 경우 9학점 이상 Pass하여야 함
 - ※ 재입학생은 성적기준 적용 제외
4. 신청기간 : 2020.09.01.(화) ~ 10.04.(일) 24:00 [5주간]
5. 신청방법 : 인포21시스템 → 등록/장학 → 장학 → 장학신청 → 우정(가계곤란)장학금 신청
 - ※ 별도 제출서류는 없으며, 온라인 신청만 가능
 - ※ 신청서 내 기재사항 작성 필수
6. 지급일정 : 2020.10.23.(금) 예정

7. 지급기준

소득분위	지급기준	소득분위	지급기준
0 ~ 3	등록금 전액맞춤	6	1,500,000원
4	2,100,000원	7	1,200,000원
5	1,800,000원	8	600,000원
8. 지급방법
 - 등록금 대출자 : 대출금 상환 처리
 - 등록금 미대출자 : 인포21시스템에 등록된 개인계좌로 이체지급
9. 지급제외대상
 - 2020-1학기 성적이 있는 2020-2학기 재학생
 - 복학생의 경우 휴학학기에 우정장학을 수혜하고 등록 휴학한 자
 - 복학생의 경우 휴학학기에 전액장학을 수혜하고 등록 휴학한 자
 - ※ 국가교육근로장학, 학업장려비, 생활비 등 등록금 초과가능 장학은 제외
 - 2020-2학기 휴학자
 - 2020-2학기 졸업유예자(정규학기 초과자)
 - 기타 장학규정에 의거한 장학지급 제한자
10. 문의 : 학생지원센터(장학 Tel. 02-961-0045~6)

스마트폰을 통한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 ‘스마트관광’의 도래

BK21 연재 인터뷰 : ① 구철모 교수

박혜림 기자 apricot12@khu.ac.kr

우리학교 7개 교육연구단(팀)이 4단계 BK21(BrainKorea21) 사업에 예비 선정됐다. ▲지속가능한 스마트관광·호스피탈리티 교육플랫폼 사업단 ▲글로벌 문명교류사 ▲지속가능 빅데이터 신산업 선도인력 교육연구단 ▲차세대 가상증강현실 하드웨어 선도기술 혁신교육연구단 ▲지능형 다차원 프린팅 소재 및 시스템 융합기술 교육연구단 ▲융합미래통신 혁신인재양성 교육연구단 ▲초고령사회 플랫폼 기반 고령서비스테크 문제해결형 혁신인재 양성사업단이 그 대상이다. BK21은 우수 대학원 역량 강화와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우리신문은 이번 연재를 통해 4단계 BK21 사업에 예비 선정된 교육연구단(팀)을 만나 그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스마트폰’은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었다. 말 그대로 스마트폰만 있으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다. 이런 현상은 관광 분야에도 적용된다. 올해 4단계 BK21 사업에 예비 선정된 ‘지속가능한 스마트관광·호스피탈리티 교육플랫폼 사업단’은 스마트폰으로 관광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것에 맞춰 새로운 관광 산업의 틀을 모색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해당 사업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구철모 교수는 “BK21에 지원하기 위해 우리학교 비전과 외부환경, 핵심가치, 비전체계, 벤치마킹 대학, 교육역량, 교육이념 등 여러 영역을 계획서에 담았다”며 “현재 우리학교 호텔관광분야는 학생 규모도 크고, 연구실적도 굉장히 뛰어난 편”이라며 이를 연구단의 강점으로 꼽았다.

구 교수는 이번 BK21 사업 예비선정과 관련해 ‘학생’이 그 주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우수한 연구성과가 있어야 하고, 여기엔 학생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금인데, BK21 사업에 선정되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다채로운 비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지원해줄 수 있게 된 것이 기쁘다”며 “소감을 한 마디로 표



구철모 교수는 BK21 사업이 마무리되는 7년 후엔 호텔관광대학이 세계 10위권으로 올라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흔히 관광학이라 하면 여행에 필요한 효율적인 방법론만을 떠올리지만, 우리는 ‘휴머니즘’적 요소까지 고민한다”

현하자면 ‘happy’”라며 웃었다.

BK21에 선정되기 위한 준비과정은 녹록치 않았다. 특히나 여러 교수가 모여 ‘스마트관광학’을 새로운 과로 설립하는 길목에서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구 교수는 “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원래 있던 많은 체계들을 조정해 새로운 것으로 맞추어나가는 과정이 쉽지 않아 수백 차례나 회의를 진행해온 듯하다”며 “김진상 대학원장, 박규창 부원장, 윤지환 학장, 그리고 31명의 교수 역할이 컸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구 교수는 앞서 ‘스마트관광’을 처음으로 정의하고 논문화한 바 있다. 스마트관광이란 개인이 어떤 곳을 관광할 때, 의사소통이나 현지 정보와 같은 문제를 스마트폰과 모바일 기술을 이용하여 해결해 가는 관광을 이르는 말이다. 구 교수는 “과거에는 회사나 기업이 여행 콘텐츠를 기획했다면, 이제는 개인이 스마트폰을 통해 콘텐츠를 만들어어나가는 스마트관광시대가 왔다”고 강조했다.

스마트관광의 이점은 여행의 콘텐츠를 개인에게 최적화하는 데 있다. 구 교수는 “스마트관광은 자신의 시간과 예산에 맞추어 교통, 숙박, 식당 등을 아울러 최적화된 여행코스를 찾는 것이 가능하기에, 보다 새롭고 창의적인 여정의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일상에서 채우지 못했던 개인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하는 경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관광지들이 개인 SNS나 블로그 등의 소셜 미디어에 공유되며 지역 발전, 경제 발전을 이루는 것은 덤이다.

구 교수는 관광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이 특히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기업들은 개인이 조금 더 자유롭게 여행을 기획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람들의 관심사를 분석해 소비자를 끌어들이 수 있는 형태의 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스마트관광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누리려면 모든 시스템을 스마트폰으로 다룰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연구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관광학”이라고 설명했다.

구 교수가 지목한 스마트관광의 주요 과제는 기술 표준화, 기술 투자, 그리고 문화적 문제다. 그는 “관광 업계가 직면한 문제 중 하나는 세계적 표준이 아닌 우리나라만의 표준을 쓴다는 데 있다”며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구글맵보다 네이버맵이 보편화되어 있다. 그런데 외국 관광객들 중 얼마나 네이버맵을 찾아서 쓰겠냐”라고 구체적인 예시를 들었다. 스마트폰을 통한 지도 어플이나 결제시스템 등의 기반을 확립화하는 ‘기술 표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서 “이제 사람들은 여행지의

독특한 문화나 활동을 즐기는 동시에 업무를 비롯한 이전 일상의 일을 처리하기를 원한다”며 “이처럼 다른 지역으로 떠나더라도 자신의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기술 표준을 세계적 기준에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교수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안 시스템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스마트폰으로 쉽게 예약하고 결제할 수 있는 에어비엔비나 우버와 같은 기업들은 간절하다. 그리고 소비자가 시스템을 이용하다 결제 카드 정보가 유출되는 등 보안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책임을 모두 감수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책임 비용을 아끼기 위해 대부분 보안 시스템을 여러 차례 두는데, 이는 과정을 더 복잡하게 만들면서 오히려 경쟁력을 낮추는 것”이라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새로운 관광 산업이 등장하면서 기존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도 해소될 필요가 있다. 구 교수는 “사실 새로운 사업이 생겨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통해 경쟁구조가 만들어져야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각종 규제로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다”며 “관광객이 원하는 서비스에 맞춰 새로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받는 거주민이나 기존 기업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스마트관광학의 앞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따로 있다. 바로 코로나19다. 구 교수는 “우리 사업단 명칭인 ‘지속가능한’이라는 단어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코로나 사태”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광산업은 많이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걱정을 내비쳤다.

구 교수는 “흔히 관광학이라 하면 여행에 필요한 효율적인 방법론만 떠올리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는 감정적인 부분, 즉 ‘휴머니즘’적 요소까지 고민하고 있다”며 “스마트관광학이 나아갈 방향에는 기술에 뒤쳐지는 이들과까지 끌어안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 호텔관광대학은 전 세계 35위권”이라며 “이번 4단계 BK21 사업이 마무리되는 7년 후에는 전 세계 10위권으로 올라가는 것이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비대면 강의 체제, 과도기 넘어 안정 찾을 수 있을까

한진석 기자 1_jinseok@khu.ac.kr
김창호 기자 kc_hox@khu.ac.kr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과도기,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하는 대전환의 시대” 한균태 총장이 전한 졸업 축사의 일부다. 우리학교를 포함한 대학가 전반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 과도기적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구성원 안전과 학습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고민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다. 비대면 강의, 대면 시험 원칙, 그리고 등록금 반환 등을 둘러싼 구성원 간 갈등이 서서히 봉합되어 가는 지금, 1학기가 직면했던 문제점과 2학기를 맞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캠퍼스의 모습을 짚어본다.

전염병의 확산, 불가피했던 혼란

지난 3월 10일, 우리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해 1학기 학사일정을 변경하고, 개강 후 4주 가량의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것을 공지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비대면 수업의 연장으로 이어졌다. 가장 먼저 불만이 터져 나온 곳은 실험·실습·실기가 주를 이루는 강의였다. 기존 공지에 따르면 3월 30일 이후 비대면 수업이 어려운 해당 강좌에 대한 보강이 이뤄져야 했지만, 격변하는 코로나 상황 속에 상응하는 조치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장시간 고민 끝에 학교가 내놓은 대책은 ‘제한적 대면 수업’의 허용이었다. 이는 코로나19 종합상황실의 지침 준수와 수강생 전원의 동의를 전제로 했다. 그런데 실제 동적 활동을 요하는 체육, 합창 등의 강좌와 헤드셋과 마이크 등의 기기를 이용하는 어학 강좌 등은 제한적 대면 수업의 대상조차 될 수 없었다. 해당 강좌를 듣는 학생들은 집중이 수기간까지 사태가 진정되기를 막연히 기다려야만 했다. 주거 문제를 겪은 이들도 있었다. 최건희(한의예 2019) 씨는 “대면 수업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끝까지 계약해지를 고민해야 했다”며 “경제적·시간적으로 많은 손실이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불안감에 8월말까지 자취방 계약을 지속했던 탓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학교의 결정과 공지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 탓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코로

나19로 인한 학사 일정 조율을 긴급히 처리한 타 학교에 비해, 그러지 못한 우리학교는 상대적으로 학생 피해를 더 키웠다는 것이다. 종강을 한달 반 앞둔 5월 11일, 우리학교는 1학기 전체 비대면 수업 운영을 확정했다. 4월 초 1학기 전면 비대면 운영을 발표한 서울대, 이화여대, UNIST(울산과학기술원) 등과 는 한 달 정도의 시차가 있다. 교무처 관계자는 “모든 결정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며 “급변하는 상황에서 내린 의사결정에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운영 계획 확정했는데” 다시 빨간불 켜진 코로나19

다소 혼란스런 1학기를 끝맺어가던 7월 14일, 우리학교는 ‘2학기 수업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혼합 운영하고, 기말 시험을 대면 방식으로 치른다는 방침이었다. 1학과와 달리 2학기는 학기 초 혼란을 막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풀이됐다. 이에 따라 실험·실습 및 실기 전공강좌, 배정 인원 20명 이하의 이론 및 복합(이론+실험·실기·실습) 전공강좌, 20명을 초과하는 복합 전공강좌의 실험 수업 등은 대면 수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교양 수업은 배정 인원에 관계없이, 이론·복합 전공강좌 이론 수업은 배정 인원이 20명을 넘으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대면 수업 병행이 또 한 번 미뤄지면서 실험·실습 및 실기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8월 24일 총학생회는 SNS를 통해 긴급 학사공지를 게재했다.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심각해짐에 따라 모든 강좌를 10월 4일까지 비대면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교무처 또한 하루 뒤 비슷한 내용을 공지했다. 교무처는 “비대면 수업에 예외는 없다”며 “실험·실습 및 실기 강좌의 경우 추후 집중 이수 기간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총학생회는 “범국가적 상황으로 학사 일정이 변경된 점 양해 부탁한다”고 전했다.

대면 수업을 준비 중이던 이들은 앞길이 막막한 심정이다. 전체 160개 가량 강좌 중에서 100개가 넘는

수업을 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던 음악대학은 비상이 걸렸다. 음악대학 김형규(기악학 2017) 학생회장은 “불만과 실망감이 섞인 학우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사전에 고지 받은 바가 전혀 없었다”며 “준비기간 없이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수단’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창구는 지난 작 중요한 학사 공지는 매일이나 총학생회의 공지사항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경희특도 입 당시, 정보처는 교내 공지사항은 모두 경희톡으로 전달받을 수 있고, 양방향 소통 플랫폼이라 소개한 바 있다. 기존의 ‘KHU알리미’에 비해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계획도 드러났다. 하지만 경희톡 공지사항을 검토한 결과, 10월 4일까지 전과목 전면 비대면 수업 진행 안내, 등록금 반환 결정 등의 중요한 정보는 게재되지 않았다. 김지현(호텔경영학 2017) 씨는 “대부분의 학사 공지는 경희톡이 아닌 총학생회 SNS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소통 수단을 마련한 만큼 학사 공지 용도와 교강사 및 학생 간의 소통을 돕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플랫폼 일원화 · 세부 성적 공개 가이드라인 준수 및 성적 기준은 교강사재량으로 남아

비대면 강의 초기, 학생들이 혼란을 겪은 또 다른 이유는 교강사마다 ‘다른 강의 플랫폼’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강의는 ‘Google Classroom’, ‘Cisco Webex’, ‘ZOOM’ 등의 플랫폼 상에서 진행되었다. 하지만 어느 하나로 통일되지 못한 채, 학기 말에는 ‘경희대학교 e-campus’라는 플랫폼까지 새로이 추가됐다. 이는 ‘Google Classroom, Cisco Webex’ 외에도 단과대학 및 교수님 별로 다른 플랫폼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교무처 수강 안내에 따른 것이었다.

각 플랫폼마다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이 제작돼 배포됐지만, 일원화되지 못한 플랫폼은 출석 및 성적 확인에 문제를 야기했다. ‘Google Classroom’을 강의 플랫폼으로 택한 경우, 플랫폼 내 출석 확

1학기

- 정해진 플랫폼 없이 교강사가 원하는 플랫폼 선택하여 진행
- 비대면 강의 질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 낮은 만족도 점수

강의 질, 플랫폼

2학기

- 강의 플랫폼 e-campus로 통일
- 교육 개선안 마련 약속
- 세부 성적 기준 공개

학사 혼란

3학기

- 비대면 강의 원칙 학기 시작 전 확정
-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한 선제적인 전면 비대면 강의 기간 공지

소통 방식

4학기

- 강의 플랫폼 e-campus로 통일
- 교육 개선안 마련
- 세부 성적 기준 공개
- 등록금, 성적 등과 관련 해 구성원 간의 갈등 이어짐

남겨진 과제들

5학기

- 강의 플랫폼 불안정, 보완 필요
- 학생들이 포함된 코로나 대응 TF 팀 운영 여부에 대한 결정

구상 중인 과제들

인 기능이 없어 학기 내내 출석과제가 부여됐다. 또한 플랫폼에 따라 출석, 과제 제출 여부 등 성적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국제캠퍼스 양성민(원자력공학 2015) 총학생회장은 “대부분부 권고에 따라 각 강의별 출석과제들이 과목마다 무분별하게 부여됐는데, 여러 과목을 수강해야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의 자료의 형태와 질도 통일되지 않았다. 동영상, PPT, PDF, Youtube 링크 등 다양한 형태의 강의 자료가 업로드 되었고, 음질과 화질 역시 표준화되지 못했다. 국제캠퍼스 총학생회가 지난 학기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촬영한 지 오래된

이전 강의 제공, 유튜브 자료 시청, 지나치게 짧은 강의 등 관련 사례만 2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에서 조사한 자료에서, “비대면 수업이 대면 강의와 비교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은 평균 2.6점(5점 만점)에 머물렀다.

2학기부터는 개선안이 마련됐다. 교무처가 지난 7월 14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학기부터 강의 플랫폼은 ‘경희대학교 e-campus’와 ‘Cisco Webex’로 한정된다. 단순 강의 자료를 업로드하는 것은 금지되며, 녹화 강의 및 실시간 화상 강의만 허용된다. 교무처는 “이번 조치로 많은 플랫폼에서 오는 혼동이 줄고, 수강 편의성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각 플랫폼에 대한 사 용 매뉴얼도 준비하고 있어 강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학기 논의된 ‘세부 성적 공개’도 이번 2학기부터 실시된다. 최 회장은 “세부 성적 공개는 절대평가로 정확한 성적 근거를 알지 못한 학생들로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며 “도입 취지에 맞게 학생들이 납득할 만한 가이드라인을 제

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 성적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성적 입력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학교 측에서도 실질적인 조치를 약속해 2학기부터는 학생들이 정확한 성적 산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의 자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주어지고 세부 성적 공개가 공식화되었지만, 교강사가 이를 얼마나 따를지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있다. 양

회장은 “본부에 세부 성적 공개와 그 기준을 규정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교수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불가하다는 답을 들었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현재로서는 나름의 성적 산출 근거를 파악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다. 교무처는 “강의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강좌 운영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면서도 “수업 운영에 대해 교무처가 교강사에 게 부여할 수 있는 페널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교강사가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강제할 순 없다는 의미다.

여전히 남겨진 과제

지난 학기 학교와 학생이 평행선을 달린 이면에는 ‘소통’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양측이 ‘선택적 P/NP제 도입’을 두고 이견을 빚을 당시, 총학은 “학우들의 힘을 모아 달라”며 온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총 5,60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6월 23일에는 서울캠 본관에서 집중공동행동을, 이튿날인 25일에는 국제캠 사색의 광장에서 촛불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경희대는 소통하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그럼에도 선택적 P/NP제 도입에 대한 양측 입장차는 결국 좁혀지지 못했다. 학교는 “절대평가로도 충분히 관련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25일 진행된 총강 참여 소통간담회에서도 해당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총학은 “학

우들의 성원에 감사드리지만 선택적 P/NP제를 도입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학생 의견을 청취하는 수단으로 학생 대표를 포함한 ‘긴급대책회의 TF’를 구성하는 안이 제시됐지만, 아직은 논의 단계에만 머무른 상태다. 양 회장은 “TF에 학생 대표들이 포함된다면 더 빠르고 정확한 의견 수용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의견을 본부에 전달했지만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듣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지난 25일 소통간담회에서 학교는 “코로나19 대책회의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8월 28일 등록금 반환을 두고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합의 전까지 갈등을 빚어온 것 역시 ‘소통 부재’가 주된 문제였다는 지적이 나

온다. 앞서 총학은 등록금 반환의 재원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해왔지만 학교가 일관적으로 선을 긋자, 결국 해당 입장을 철회하는 것으로 논의는 마무리됐다. 양 회장은 “동등한 구성원이라는 생각으로 서로의 요구와 질문에 성실히 응했다면 더욱 건전한 논의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학교 관계자는 “자료 공개는 앞서 설명해 온 몇몇 이유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2학기 교육환경 개선안을 통해 학생 사회의 요구에 응할 것”이라 전했다. 앞선 지적들에 대해 교무처는 “안전과 학습권을 모두 고려할 때, 논의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거나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면서도, “2학기는 강의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불만사항 접수 등 강의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재학생*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이나,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2차 신청 후 구제신청서에 공인인증서 서명완료 시 재심사 후 지원가능

2. 2차 학생 신청기간 : 2020.8.20.(목) 09:00 ~ 9.15.(화) 18:00
※ 일 ·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가능 (마지막 날은 18시까지 가능)

3.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20.8.20.(목) 09:00 ~ 9.21.(월) 18:00
※ 단, 2020.9.15.(화) 18:00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 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음

4.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주소 : http://kosaf.go.kr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주소 : http://mo.kosaf.go.kr/apps
• 공인인증서 필요

5. 서류제출방법 : 신청 다음날 홈페이지에서 제출 필요서류 확인 후 온라인으로 제출
•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장학금 신청현황 → 서류제출에서 제출서류 확인 가능

6. 문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한 국 장 학 재 단

연재기획-코로나 시대의 학생자치

소멸 혹은 진화, 선택의 기로에 선 학생자치

김수혁 기자 sherk@khu.ac.kr

연재순서

- ① 학생자치가 걸어온 어제
- ② 학생자치가 마주한 오늘
- ③ 학생자치가 바라볼 내일

#. 코로나19 등장 이후, 지난 한 학기 동안 대학 사회는 전례를 찾기 힘든 재난 상황에서 큰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교육, 연구, 행정을 막론한 대학의 전 영역이 도전에 직면했으며 이는 학생자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학생자치가 마주한 도전은 보다 특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주한 위기의 정도와 범위에 견주었을 때, 학생자치 영역이 대응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은 너무나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면 쇄신을 요구하는 이 위기는 학생자치의 와해를 가속하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지만, 역으로 학생자치가 새로운 국면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동아리’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거나 긴 물건을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말할 때 그중 어느 한 부분’, 다른 하나는 ‘같은 뜻을 가지고 모여서 한패를 이룬 무리’입니다. 둘 중 오늘날 한국어 언중에게 훨씬 친숙한 의미는 단연 두 번째입니다. 특히 학교나 기업과 같은 조직의 구성원들이 취미나 목표를 공유하기 위해 함께 활동하는 모임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동아리라는 말의 이런 용례는 한국어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비교적 새로운 것에 속합니다. 1968년 경향신문에서 연재되던 최인욱의 소설 『태조왕건』의 어느 회차에는 “이 동북 방면에 출몰하는 여진족은 대개가 흑수부족인데 한 말로 흑수부족이라고해도 그 집단이 삼십 동아리나 되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1975년 동아일보의 한 칼럼에는 아이들이 어버이날을 맞아 카네이션을 사 들고 걸어가는 길 위의 풍경을 묘사하며 “바람에 흩날리는 저들 버들 꽃은 카네이션을 사 들고 동아리들끼리 재잘거리며 집길을 재촉해가는 그 착한 아들딸의 눈앞을 훤히 넘나들고 있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동아리라는 말이 우리에게 친숙한 의미로 신문지면에 대거 등장하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바꾸기 전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교류하고 있다.

기 시작하는 시기는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 사이입니다. 동아일보는 1989년 8월 21일 발행된 「대학가 新造(신조) 우리말 유행」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학생들 사이에서 외래어나 한자어를 우리말로 대체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합니다. 기사는 기존에 같은 의미로 사용하던 서클을 대신한 동아리를 포함해서 박음쇠(스테이플러), 댕거리(세미나), 날밤새기(철야농성) 등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학가가 되살린 ‘동아리’

국어학자 조항범은 자신의 책 『그런, 우리말은 없다』에서 “대학가에서 펼친 우리말 살려 쓰기 운동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부활한 단어를 하나 들라고 하면 주저 없이 ‘동아리’라는 단어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대학가에서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일컫는 ‘새내기 새로 배움터(새터)’나 MT를 대신한 ‘모꼬지’ 등 학내 자치활동을 가리키는 우리말 용어들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난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학생자치의 문화적 유산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동아리라는 말로 대표되는 대학가의 친목, 사교, 동호 모임은 대학생 자치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이나 새터를 ‘대학 생활의 꽃’이라고 부르듯 많은 기대를 품고 처음 캠퍼스에 들어서서 신입생들에게 동아리를 비

롯한 학내 자치활동은 동경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계속되며 우리 삶의 익숙한 구석구석을 뒤바꾸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은 학생 자치활동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가 1학기에 이어 2학기도 비대면 체제로 돌아가면서 올해 입학한 신입생들에게는 기대했던 동아리도 새터도 여전히 ‘남의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비대면이 불러온 자치활동의 위기

서울캠퍼스(서울캠) 총동아리연합회(총동연)는 지난 8월 27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세를 보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하기로 한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중앙동아리 활동 자제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학생회관 폐쇄도 무기한 연장하게 됐습니다. 확산세가 어느 정도 잦아들면서, 2학기부터 온라인을 통한 홍보를 중심으로 신입회원을 모집하기로 한 개별 중앙동아리들의 계획도 현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캠퍼스 총학은 ‘온라인 축제’ 개최를 위한 방안을 궁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0일에는 우리학교 서울캠 총학생회(총학)와 성공회대 총학 공동주최로 ‘코로나 이후의 대학, 그리고 학생자치’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캠 총학 최인성(생물학 2016)

회장은 발제를 통해 “구성원이 매년 교체되는 대학 특성상 대면접촉의 중단은 기층 공동체 재생산의 심각한 위기를 낳았다”면서 “당장 올해 말 학생회 선거가 대거 무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1~2년 내 학생회뿐 아니라 상당수의 동아리, 소모임들이 소멸의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학생자치가 마주한 문제 가운데 ‘관계 형성의 위기’를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만나지도, 친목을 다지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공동활동도 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학생공동체라는 인식의 형성 자체가 위태롭다는 것입니다. 최 회장은 “각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단기간 내에 종식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학생자치의 존속을 위한 ‘항체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낯익은 일상의 귀환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 회장의 지적대로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가 보다 근본적이고 불가역적인 변화 위에 올라타 있다고 분석합니다. 미래학을 연구하는 윤기영(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도 그 중 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 공동저자로 『뉴노멀』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의 부제목은 “우리가 알던 세상은 끝났다”입니다. 책에 따르면 오늘날 국제사회의 네 가지 ‘메가트렌드’인 이상기후, 농지확대, 도시화, 세계화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의 지구적 대유행 발생 주기를

더욱 단축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기후와 농지확대가 야생동물의 서식지 교란을 일으켜 동물 간 접촉, 동물과 사람 간 접촉을 늘리고 새로운 인수공통감염병의 등장이 빈번해집니다.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와 여러 나라를 연결하는 인적, 물적 교류망이 전염병의 사람 간 전염,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의 확산을 부추깁니다. 당장 코로나19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5월 13일 코로나19가 마치 독감과 같이 일시적인 유행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특정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발병하는 ‘엔데믹’이 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켜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

윤기영 교수는 “코로나19로 나타난 전염병 위험은 전통적인 대학 모델의 해체를 더욱 가속할 것”이라며 “완전한 변화까지는 적어도 한 세대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비대면 확대와 교육과정의 개별화로 대학이라는 환경의 물리적 외양이 바뀌면 학생자치 역시 근본적인 변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인원의 집합과 긴밀한 대면 접촉을 전제로 삼아온 자치활동들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윤 교수는 “지적 성숙은 단순히 지식과 정보의 습득만이 아니라 이것을 연결지어 창의적으로 재생산하는 통찰과 지혜도 필요로 한다”면서 “이런 능력은 다른 사람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훈련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결국은 지금까지의 자치활동이 제공했던 교류, 협력 경험을 온라인, 비대면이라는 환경에 이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학생자치운동은 기성사회의 문화에 결핍된 요소를 지적하고 낡은 관습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대학가의 우리말 살려 쓰기 운동도 민족문화의 정체성 회복이라는 목표가 있었지만, 더이상 유효하지 않은 과거 학생자치활동의 표어까지 그대로 안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혹여 우리가 알던 동아리도, 새터도, 축제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받아들이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자치의 존속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질문은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인지도 모릅니다.

“국화로서의 무궁화를 비판한다” ... 『두 얼굴의 무궁화』

이태영 기자 ysmhip6@khu.ac.kr

“무궁화는 과연 대한민국의 국화(國花)가 될 자격이 있는가” 구한말 이래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역시 되어 온 꽃인 ‘무궁화’를 두고 『두 얼굴의 무궁화』 저자 강요백 법무대학원 교수는 위와 같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많은 아름다운 우리나라 자생종 꽃을 놔두고 왜 하필이면 근본도 불분명한 무궁화를 대한민국 국화로 지정했는지를 고찰했다”고 말한다. 그 자세한 이야기를 강 교수로부터 직접 들어 보았다.

국민 모두가 사랑한다고 알려진 꽃, 무궁화. 대한민국의 5대 국가 상징 중 무려 세 가지(국가·국화·국장)에 자리매김한 무궁화는 한국 정신의 6할을 지배하다시피 하는 꽃이다. 이런 무궁화를 말 그대로 ‘저격’하는 책이 있다. 6월 말 출판된 『두 얼굴의 무궁화』다. 저자인 강 교수는 무궁화가 우리나라 국화로서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을 역사·문화·자연과학적 관점 등 다양한 근거를 통해 정리했다.

역사성 못 갖춘 무궁화 “민족 고유 꽃이라는 단서 없어”

강 교수는 여러 사료들을 통해 무궁화가 국화로서의 요건 중 하나인 ‘역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한다. 한 마디로 “민족의 역사 속에서 무궁화는 피지 않았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제왕운기(帝王韻紀)』,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등 한국의 6대 대표 사서 중 무궁화에 대한 언급은 『조선왕조실록』에서 단 한번, 그것도 ‘단명’이라는 부정적 의미로 단 한 글자만 나온다고 설명한다.

이는 문학에서도 마찬가지다. 강 교수는 조선시대 3대 시조집인 『청구영언(靑丘永言)』의 시조 580수, 해동가요 883수, 가곡원류 856수를 비롯해 고려 중엽부터 구한말까지의 옛시조 3,355수에서 언급되는 꽃은 총 37종에 달하지만 무궁화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민속 문학 중 무궁화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시(漢詩) 뿐이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고려시대 457년간 무궁화가 등장하는 시를 읊은 것은 최충(崔沖), 이인로(李仁老), 이규보(李奎報), 이



제현(李齊賢) 모두 네 사람에게 불과 하며, 이때 무궁화를 소재로 창작된 한시는 총 5수에 불과하다. 조선시대 한시를 둘러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조선왕조 505년 동안 무궁화를 소재로 한시를 창작한 인물은 윤선도(尹善道), 정약용(丁若鏞), 서거정(徐居正) 등 열 사람이 채 되지 않는다. 민족 문학에서도 무궁화 꽃은 피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요지다.

빼어난 깨달음의 연속 “어린 시절부터 시작돼”

음악 속에선 무궁화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을까. 강 교수는 판소리와 가창 국악의 가사를 집대성한 『창악집성(唱樂集成)』과 『춘향가』, 『심청가』, 『박타령』을 비롯한 12마당의 판소리 곡을 살펴해보았으나, 무궁화가 언급된 요소는 없었다고 말한다. 그는 이어 문화방송의 『한국민요대전』 음반자료 사이트에 올려져있는 민요 2,585곡 중에서도 무궁화의 흔적은 없다고 말한다. 서예에서도 구한말 이전 한반도의 시공에서 무궁화를 뜻하는 ‘근(槿)’자는 한 글자도 찾아볼 수 없으며, 미술품과 문화재, 유물은 물론 골동품에서도 무궁화는커녕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한다. 역사적 관점뿐만 아니라 문화적 관점에서도 무궁화가 우리 민족 고유의 꽃이라고 볼 만한 단서는 없다는 것이다.

그가 무궁화에 주목하게 된 것은

어린 시절 떠올린 한 가지 의문에 서부터다. 강 교수는 “초등학생 시절 문득 무궁화가 ‘욱일기(旭日旗)’와 닮았다고 생각했을 때부터 무궁화에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시간이 흘러 대학에 진학한 그는 시조(時調)를 공부하며 다시 한번 무궁화에 주목했다고 한다. 강 교수는 “대학에 다닐 때 시조에 빠져 우리나라의 여러 시조를 공부했는데 이때 우리나라의 시조 중 무궁화를 소재로 삼은 시조가 하나도 없음을 발견했다”며 “이때부터 국화로서의 무궁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대학 졸업 후 외교관으로서 중국을 방문했을 때 비로소 무궁화에 대한 그의 문제의식은 폭발했다. 강 교수는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야생 무궁화가 중국 관동지방에 뻗어 피어있는 것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며 “이후 인터넷을 통해 무궁화에 대해 조사했는데, 무궁화의 원산지는커녕 재배지 목록에조차 ‘KOREA’가 없었던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를 계기로 강 교수는 다른 나라의 국화와 무궁화를 비교 분석하기 시작해 ‘국화로서의 무궁화’가 가진 정당성에 대한 연구를 이어오게 됐다.

『두 얼굴의 무궁화』는 깊은 고민과 결정, 그리고 기나긴 연구 끝에 탄생한 책이다. 저자인 강 교수는 500일간의 무궁화 연구 끝에 6월 말에서야 이 책을 완성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무궁화를 연구하고 책을 펴내면서 상당한 괴로움을 겪었다고 한다. 그는 “연구를 하며 세계 경제 10위 규모의 경제대국, 문화대국이라는 영광에 가려진 우리나라의 민낯을 깨달아 괴로웠고, 연구를 거듭할수록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 이어져 괴로웠다”고 말했다. 왜 진작 이런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는지, 왜 그동안 기존 지식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맹신했는지에 대한 자책과 반성에서다.

미주했던 두려운 현실 “그럼에도 계속 탐구해야”

강 교수는 무궁화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솔직히 무궁화 연구를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무궁화 연구가 그의 전공인 법과도 아무런 연관성이 없을뿐더러, 국혼을 깨버리는 그의 연구가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오해를 받을 것이 두려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무궁화 연구를 끝마치고 책을 집필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강 교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정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이고, 언젠간 세계인들이 무궁화가 ‘국화로서의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텐데 그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알 볼지 생각하니 연구를 멈출 수 없었다”며 “내가 희생양이 되어 욕을 먹

더라도 기록을 남겨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강 교수의 주장과 근거는 일부만을 부각한 왜곡된 내용이다”라며 『두 얼굴의 무궁화』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에 강 교수는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불쾌감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두 얼굴의 무궁화』가 사람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대한민국의 정신’ 중 하나인 무궁화를 깨부수는 내용을 담고 있으니, 거부감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무궁화에 대해 조금만 알게 되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생각을 펼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시대다. 직접 무궁화에 대해 알아보면 ‘왜 진작 무궁화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을 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나도 그랬다”고 말했다.

국가상징 바로잡으려 노력할 것 “편견 갖지 말고 늘 궁금해 해야”

강 교수는 여생을 잘못된 국가상징을 바로잡는데 바치겠다고 공언했다. 실제로 그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고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가 ‘윤봉길 의사의 체포 당시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내, 모든 교과서가 해당 사진을 삭제하기도 했다. 그는 “오는 9월 말 역사, 헌법적 관점에서 애국가의 정당성을 훑아보는 책이 출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산 정약용의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를 고려부터 현재까지의 기준으로 재구성한 『신(新)아방강역고』를 집필해 국토에 대한 정보를 바로잡고, 『아언각비(雅言覺非)』의 현대판 격인 『신아언각비』를 집필해 잘못 사용되고 있는 국문들도 제대로 밝혀 알리고 싶다”고 포부를 말했다.

강 교수는 저자이기 이전에 학자이자 교육자다. 그는 “지식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이비종교와 같다”고 강조했다. 기존 지식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암기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 없이 사이비종교에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편견을 갖지 말고 ‘마침표’가 아닌 ‘물음표’의 태도로 지식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두 얼굴의 무궁화』를 읽는 독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주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사설

비판만이 능사는 아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뒤숭숭한 시국이 이어지고 있다. 대학은 당황한 기색이다. 학교 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다시 수그러들었기 때문이다. 당초 대학은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인원과 수업방식에 따라 조건부 대면 수업을 허용했다. 하지만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학교로서도 전면 비대면 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급작스런 코로나 전개 상황이 지난 3월과 비슷한 혼란 사태를 또다시 재현해낸 것이다.

학생사회에선 이런 학교에 대한 불만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비대면 강의, 등록금 반환, 학생 의견 수렴 요구는 모두 한 줄기로 이어져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학

생들이 학습권 침해를 두고 시정을 요구하며 등록금 반환을 주장했지만, 학교가 만족할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선을 긋자 이번에는 소통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학교가 코로나19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학생들의 비판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나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은 타당해 보인다.

분명한 건 코로나19가 빚어낸 문제가 모두에게 처음이라는 것이다. 전면적인 비대면 수업 또한 마찬가지다. 대학은 '뉴노멀'을 앞두고 아직은 걸음마 단계다. 경험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과정이 쌓여야 매뉴얼이 된다. 시간이 해결할 문제다. 따라서

일부 시행착오가 생기는 것을 감안한다면 문제의 본질은 학교의 행정적 역량 부족에 있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재정이다. 코로나19가 만들어낸 혹독한 시련은 재정적 뒷받침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대학은 그럴 여력이 부족하다. 학교의 한 해 예산을 이루는 것은 주로 학생들의 등록금과 학교 사업 수익이다. 하지만 등록금은 동결된 지 오래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수익도 상당 부분 감소한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지출은 되레 늘었다는 게 학교 측 목소리다. 각종 인건비를 비롯해 나갈 돈은 그대로인데, 비대면 수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은 추가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학교의 재정위기는 핑계가 아니라 임박한 현실인 것이다.

코로나19 방역을 '대국민 팀플'이라 부른다고 한다. 전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당장의 불편을 감수하고 방역수칙에 협조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학교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교육환경개선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경희인 팀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부정적인 피드백을 던지는 것만으로는 팀원의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비판과 비난을 구분해야 할 시점이다. 코로나19로 닥친 상황이 힘들고 당혹스럽기는 모두가 마찬가지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서로에 대한 이해심을 발휘하는 것도 코로나19라는 과제를 해소할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의 '네이비즘'을 쫓을 때

취재수첩

한진석 기자
1_jinsek@khu.ac.kr



수강 신청 기간이 되면 학생들이 접속하는 사이트가 있다. '네이비즘'이라는 서버 시간 조회 사이트다. 학교 수강 신청 사이트의 서버 시간을 조회한 후, 조금이라도 빨리 신청 버튼을 누르고자 초단위로 압박하는 전자시계를 바라본다. 엄밀히 말하면 '네이비즘'이 표시하는 시각은 정확한 시각이 아니다. 해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핵심은, 학교가 관리하는 서버의 시각을 알아내는 데 있다. 학생들은 늘 학교의 시계에 맞춰 초단위로 적응해 움직인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로 순서와 혜택, 때론 성적을 부여받는다. 이처럼 학교가 제시한 기한과 시각을 학생들이 모두 따르는 것은, 아마도 다른 구성원들 또한 그 약속을 함께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학교가 두 학기에 걸쳐 코로나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취재하면서, 생각보다 그 시계가 자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

실을 알게 되었다. 다른 학교보다 늦은 비대면 강의 기간 발표 때문에 자취방 계약을 붙잡은 채 발만 동둥 구르던 학생들이 있었다. 교직원들의 퇴근 시각을 잊은 것처럼 밤새도록 본부 앞에서 답을 요구하는 학생들이 있었고, 갑작스런 대면 시험 발표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시간도 없이 학교로 불려온 학생들이 있었다. 성적 공지 시간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올라오던 성적과, 매학기 제때를 지키지 못한 채 탑재되는 강의계획서는 교강사들의 시계가 학생들을 향하지 않았던 방증이다. 강의 질 향상과 강의 플랫폼 일원화를 약속한 2학기 첫날, e-campus는 서버 불안정 문제로 정해진 강의 시간을 지킬 수 없었다. 가장 빨리 학사 관련 공지를 전달해야 했던 학교의 '경희톡'은 매번 총학생회의 SNS에 그 역할을 내주었다.

이제는 비대면 강의 체제에 대비하는 과도기를 지나, 무언가 달라질 때라고 모두가 말한다. 한균태 총장 역시 서신을 통해, "위기 대응의 성패는 이전 상황으로 얼마나 복귀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위기를 통해 어떤 전환을 이뤄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문



만평 학교의 '네이비즘'을 쫓을 때

제에 맞닥뜨릴 것이다. 하지만 하나의 전환만 이루어낸다면 구성원 간의 갈등에 허비되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학생들만 학교의 시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학교도 학생들의 시간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주거문제를 고민하며 학사 공지만 바라보고 있는 학생, 학교의 답을 구하기 위해 묵묵히 서 있는 학생, 매학기 1초만큼 앞서 교실에 달고자 경쟁하는 모든 학생들의 시계에 주목해야 한다. 여태껏 학생들은 학교가 제시하는 일정을 뒤따랐을 뿐 그 중심에서 본 적이 없다. 학생들이 때론 학교에 배신감을 느끼고, 소통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이

유는 여기에 맞닿아 있다.

학생들이 던졌던 질문들에 대해, 최근들어 학교에서도 하나 둘 답을 꺼내고 있다. 그중 등록금 반환 문제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한 학기가 넘는 기간이 소요되었다.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8월 3일 전에 공지하던 성적 평가 방식은 약속된 시간으로부터 2주일이 지나서야 발표되었다. 대담과 대응의 적기를 찾고 싶다면, 학생들이 현 상황 속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학생들의 시간을 알아보는 '네이비즘'을 쫓고, 학교의 시계를 조정할 때가 왔다.

나를 돌아보는 눈

세시봉

김수혁 기자
sherk@khu.ac.kr



'방황하는 유대인' 이야기는 유럽에서 13세기쯤 성립된 것으로 여겨지는 전설이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예수에게 군중 가운데 있던 어떤 이가 "걸음이 느리니 빨리 지나가라"라고 말하며 조롱했다. 그러자 예수는 그를 돌아보고 "나는 간다만 너는 여기서 내가 돌아올 날을 기다려야 하리라"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이 유대인은 이후 죽지 못하고 예수가 재림할 날을 기다리면서 세상을 떠돌고 있다는 이야기다.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성경이나 신화만 한 당대 사료에 근거한 이야기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저 이 전설을 오랜 세월 사람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하나의 이야기로 바라보자. 사람들은 왜 계속해서 이 인물에 관해 이야기했을까.

우리는 대개 이입할 수 있는 이야기 속 인물에게 사로잡히기 마련이다. 그 인물이 타락했거나 고통받거나 몰락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인물들에게 더 강렬하게 매료되기도 한다. 그의 타락, 고통, 몰락의 원인이 되는 결함이 자신에게도 존재함을 알아채기 때문이다. 경솔한 행동으로 구세주를 모욕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불사의 삶을 이어가는 사람의 이야기에 섬뜩함을 느낀다면, 그가 예수와 눈이 마주친 순간을 떠올려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이 어떤 신념을 가졌느냐에 따라 마주 본 눈의 주인은 신, 도덕관, 개인적 양심 무엇이든 될 수 있다. 그 눈은 내 말과 행동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자기 객관화의 눈이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얼마 전 퇴원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스스로 고통을 겪어 보셨으니, 이제 부디 자신의 행동이 유발한 타인의 고통도 살피시기를 바란다. 마음속 그리스도의 눈을 마주 보시기 바란다.

경희대학교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인 한균태 | 편집인 남윤재 | 편집장 김지원 | 제작/인쇄 청솔디자인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어째서 ‘대면’이 아닌 ‘비대면’인가?

교수칼럼

김 정 남
한국어학과 교수



시대가 참 많이 변하였다. 예전에는 서로 얼굴도 모르던 남녀가 중매쟁이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선을 보고 간접 대화를 주고받아 의견을 교환하며 결혼을 했던 시절도 있었다지만, 그건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기술 문명이 발달하여 먼 곳의 사람들이 편지를 주고받게 되었지만 상당한 시간 간격을 요하는 일이었다. 기술은 더욱 진보하여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고도 상당히 긴 기간 동안은 서로 얼굴은 마주하지 못한 채 소리만으로 의사 전달을 하는 것이 가능했다. 혹은 컴퓨터 통신이 시작된 초기처럼 문자를 통해서 소통하였다. 말과 글을 주고받지만 상대방의 생김새를 알 수 없는 시기가 한동안 있었던 것이다. 이른바 ‘대면’을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얼굴을 모른 채 서로 온라인 채팅만을 통해 상대방의 모습을 상상하며 기대했다가 오프라인으로 실제 만남을 가진 후 실망하거나 더 이상 만남이 이어지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다.

화상 기술의 발달로 사진의 전송뿐 아니라 실시간 화면을 통해 상대방을 마주 보며 대화를 하는 일이 가능해졌고, 현재로서는 어느 누구도 그러한 기술이나 기기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 장소만 다를 뿐 시간을 공유하며 상대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대로 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른바 ‘원격’이다.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일 뿐 동시에 모습을 보기에 같은 장소에 있는 것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 같은 자료를 보고 같은 소리를 듣고 같은 느낌을 갖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거리와 공간을 뛰어넘는 ‘진짜 실시간’ 소통

바로 이러한 현장감은 이미 팩시밀리나 파일 전송 등의 방식으로 우리 앞에 와 있었다.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 굳이 먼 거리를 이동해서



(사진=unsplash)

원본을 전달할 필요 없이 “원격 복제”를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화상 회의 톨을 통해서 “진짜 실시간”으로 사람들 간의 공유와 소통이 가능해졌다. 동일 공간에 있다고 느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소통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현재 이러한 상황이 되니 영화 “The Fly(1986)”의 주인공이 더욱 애처롭게 느껴진다. 옷을 갈아입을 때 고르는 시간조차 아까워 같은 옷을 여러 벌 옷장에 걸어놓고 입을 만큼 시간을 절약해 연구에 몰두했던 과학자가 결국 자신을 대상으로 한 전송 실험에 실패해서 몸 속에 ‘파리’의 유전자들 둔 채 살아가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이 결국 그 “거리를 초월하고자 하는”, “시간을 들이지 않고 공간을 뛰어 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결국 인간의 지나친 욕망이었고 초월적 존재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단죄하는 듯하여 그 주인공이 너무나 비극적으로 느껴졌었는데 우리는 현재 그 방식을 바꿔 “거리”를 포기하고 동시간 속 많은 것을 공유하는데 성공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

왜 굳이 ‘비대면’ 인가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나는 이러

한 현장감에 왜 굳이 “비대면”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지가 의문스럽다. 진짜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니 대면이 아니라고 항변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공간에서 서로 만져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대하는 얼굴만이 얼굴은 아니지 않은가? 그 사람의 현재 기분이나 꾸밈의 정도나 거의 모든 것을 그대로 보여 주는 화상 대화가 왜 대면 대화가 아닌지 알 수 없다.

2020년 1학기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한 원격 수업이 이제 거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나는 이를 원격 수업이라 부를지언정 ‘비대면’이라고 굳이 말하고 싶지 않다. 얼굴을 한쪽만 일방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카메라를 켜기만 하면 서로 보면서 실감나게 현장감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 결코 ‘비대면’ 환경은 아닌 것이다. 물론 단어의 의미는 사용에 따라 달라지고 문맥에 의해 결정되는 면이 있다. 그러나 굳이 ‘비대면’이란 단어를 이용하여 이러한 상황을 지칭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온라인 수업’이 기존의 플랫폼에 자료를 탑재하는 방식인 수업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혼동을 준다면 ‘원격 수업’이라는 단어를 쓸 만하다고 생각한다. ‘실시간 원격 수업’ 혹은 ‘녹화본 재생 수업’ 중

하나를 우리는 선택하여 지난 학기를 지내 왔다. 후자의 경우에는 얼굴을 마주하기도 어렵고 실시간 질의응답도 불가능하니 비대면 수업이 맞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에는 카메라를 안 켜 상대방이 ‘비대면’이고 카메라를 켜는 때는 당연히 ‘대면’이다.

비대면 아닌 새로운 방식의 대면시대

내가 이렇게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의 원격 수업에서 이번 학기에는 학생들도 모두 카메라를 충분히 활용하여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교감하는 수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이다. 감염의 우려 때문에 실제로 만날 수는 없지만 화상을 통해 얼굴을 마주하며 실제 강의실에서와 다를 바 없는, 아니 더 효율적인 강의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에서이다. 여기에 굳이 ‘비대면’을 강조함으로써 자칫 그런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지난 학기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는 시험 시간 외에는 카메라 켜기를 종용할 수 없었다. 카메라를 켜게 하는 것이 무언가 사적인 영역에 대한 침범이나 강요라고 느끼는 사회문화

적 분위기가 내 의식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이 교실에 나올 때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를 가리고 나오는 것이 아닐진대 원격 강의실에 입장하면서 카메라를 켜지 않는 것이 디폴트(기본 설정)일 수는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이제는 하게 되었다. 물론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에서는 상대방에게 자신을 전혀 안 보이게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선택적이거나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처신이어야지 기본일 수는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인 것이다.

결국 “비대면”이라는 단어에도 이러한 분위기가 묻어 있지 않나 생각해 본다. 온라인으로 원격으로 진행되면 실시간도 비대면이라는 식의 생각이 이상하다는 것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하루빨리 깨닫고 단어를 고쳐 사용하는 성숙함을 보였으면 한다.

“대면”이란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대함.”이다. ‘공동 공간’ 같은 의미는 그간의 기술의 한계에 의한 문화적인 함의일 뿐이다. 우리는 현재 기술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대면이 가능하고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강요받고 있다. 이러한 강요에 얼굴을 숨기는, ‘익명’을 넘어서 ‘익면’까지 보태지는 말자.

종합

26년 만의 우승컵 ... 하키부 '대통령기' 정상에

김가연 기자 rkds0617@khu.ac.kr

지난달 11일 강원도 동해시 쉼라 이즈 국제하키경기장에서 제34회 대통령기 전국하키대회가 열렸다. 우리학교 하키부 선수들은 여자대학부 결승전에서 한국체육대학교(한체대)를 3대 1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여대부와 일반부가 함께 운영되던 1994년도 대회 여대일반부 우승 이후 26년 만의 일이다.

하키팀은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경기는 15분씩 네 쿼터로 진행된다. 이번 결승전에서 양 팀은 1쿼터에서 득점 없이 2쿼터를 맞이했다. 2쿼터에선 우리학교 전도연(스포츠지도학 2019) 선수가 필드골을 성공시키는 등 크게 활약했다. 3쿼터에선 한체대 골키퍼의 파울로 페널티를 얻어 정다빈(스포츠지도학 2019) 선수가 공격에 성공했다. 이어 4쿼터에선 주장인 김예은(스포츠지도학 2017) 선수가 터치 슛을 성공시켜 승부를 굳혔다.

이날 결승전에는 비가 내렸다. 우리학교 하키부 출신인 오선유 감독은 “하키는 장비를 사용하는 종목이다 보니 비로 인해 스티키 미끄러지거나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비가 올 때를 대비한 훈련도 진행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선수들은 비가 온 것이 오히려 팀에 득이 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비 덕분에 기온이 낮아져 체력 소모가 덜했고, 서로를 의지하는 마음도 커졌다는 것이다. 김예은 선수는 “팀 인원이 적어 교체 선수



제34회 대통령기 전국하키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우리학교 선수들이 오 감독을 행가래하고 있다.

(사진=체육부 제공)

“인원 부족과 감독 부재 속에서도 끝까지 달려왔기에 좋은 결과 낼 수 있었다”

가 따로 없기 때문에 더위에 따른 부상자가 발생하면 치명적일 수 있었다”며 “비가 온 덕에 기온이 내려가 모든 선수가 끝까지 경기에 임할 수 있었다”라며 결승전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선수들은 입을 모아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경기를 우승으로 이끄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우승 소감을 밝혔다. 오 감독도 “팀워크, 양보, 배려와 같은 정서적 부분을 항상 중시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경기로 오 감독은 감독상을,

김예은 선수는 최우수선수(MVP) 상을 받았다. 오 감독은 “시합을 준비하며 선수들의 스트레스가 심했을 텐데 힘든 훈련 과정을 잘 견뎌준 모든 선수들에게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김예은 선수는 “주장으로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늘 힘을 실어주신 감독님께 감사하다”며 “앞으로 선수 생활을 하며 힘든 일이 많겠지만 그때마다 이날을 떠올리며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우승은 인원 부족 등의 열악한 상황을 딛고 얻어낸 결과가 더 값지다. 작년부터 감독을 맡은

오 감독이 오기 전까진 감독 자리가 장기간 비어 있기도 했다. 선수들은 자율적으로 훈련을 진행했고 대회에 출전할 땐 체육부에 있던 다른 지도 교사들이 임시 감독 역할을 했다. 김예은 선수는 “감독이 공식인 동안에는 전술적인 역량을 채우기 힘들었고, 대회에서 심판의 판정을 받을 때나 다음 경기를 할 상대 팀 선수를 전략적으로 골라야 할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며 그간의 일을 회상했다.

체육부 측은 “이전 감독이 정년 퇴직한 후 새로운 감독을 뽑지 못해 3년간 그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오 감독이 작년부터 재능기부 형태로 감독직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하키부는 지난 5년 동안 특별한 수상 실적이 없었는데 오 감독이 온 지 2년 만에 큰 상을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인원 부족에 대해선 “우리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 체육부서가 다양해서 부서별 정원은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오 감독은 “교체 선수가 없는 만큼 훈련을 할 때 선수들의 체력과 부상을 가장 민감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12명의 선수가 골고루 활약해 전체 28명으로 구성된 한체대 하키팀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벌였다”며 대견한 마음도 내비쳤다. 김예은 선수도 “하키부 활동을 하며 크고 작은 일이 많았고 때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결국 끝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며 “어려운 일이 생겨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대학주보 69기 수습기자 모집

모집대상 3학기 이상 활동 가능한 재학생, 복학생, 휴학생

전형일정 - 서류전형(지원서 작성): 9월 7일 월요일~ 9월 25일 금요일
- 면접일시: 서류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후 일정 조율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입사 지원서 및 필기시험 작성 후 제출)
- 2차: 개별 면접 진행

접수방법 홈페이지(media.khu.ac.kr/khunews) 팝업창에서 입사지원서 다운받아 작성 후 업로드 제출

주요업무 - 학내 뉴스 아이템 발제
- 발제 아이템 기획 및 취재
- 온라인, 지면 기사 작성

활동혜택 - 장학금 지급(최대 전액)
- 원고료 지급

| 기타 궁금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주보 페이스북 페이지 메시지
- 대학주보 인스타그램 DM (@khunews_jubo)
- 연락처 : 편집장 김지원(010-9865-0804), 문의사항은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 전 화 : 02-961-0095 (서울캠퍼스 편집실), 031-201-3232 (국제캠퍼스 편집실)